제2강 『소피스테스』의 논의 구도

(1교시)

▶『소피스테스』

플라톤의 사유는 『국가』에서 이미 풍부한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경지는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진다. 플라톤은 스스로의 철학을 전면적으로 재론에 부침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다. 『파르메니데스』『테아이테토스』『티마이오스』는 플라톤 사유의 새로운 정초를 담고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데아론을 다각도로 재론함으로써 엘레아학파를 넘어선 플라톤을 보여준다. 『테아이테토스』는 진리 개념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후기 사유의 새로운 토대를 놓고 있다. 『티마이오스』는 플라톤 사유에서 그때까지 비교적 소홀히 했던 자연철학의 새 경지를 열고 있다. 이 세 대화편은 각각 존재론, 인식론, 자연철학에서 플라톤 사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다시 놓여진 토대 위에서 다시 존재론과 실천철학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 3부작으로 기획된, 그러나 아쉽게도 그 3부는 씌어지지 못한 『소피스테스』『정치가』『철학자』는 플라톤 사유의 가장 원숙한 경지에서 씌어지고 기획된 세 대화편들이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 『소피스테스』가 놓인다. 이 대화편은 플라톤 사유의 이론적-실천적 심층을 활짝 열어 젖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화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논의 구도에 있다.
이 대화편은 하나의 주제를 단조(單調)롭게 전개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접속시키고 있다. 그 접속이 매우 절묘해 이 대화편의 통일성과 치밀함에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각 악장이 독자적인 울림을 전해주면서도 조화로운 전체를 들려주는 교향악과도 같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 절편들의 배치이다. 『소피스테스』는 철학함의 한 전범(典範)을 보여준다.

『소피스테스』의 첫머리는 『테아이테토스』의 말미를 잇고 있다: "하지만 테오도로스, 내일 여기에서 다시 만나세그려." 테오도로스는 약속대로 다음날 테아이테토스 등을 만나게 되거니와, 그는 이 때 엘레아에서 온 손님을 대동하고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이방인은 대화편의 주인공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테아이테토스와 엘레아의 이방인 사이에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진다. 이 대화편의 출발점은 사이비 지식인으로서의 소피스트들의 고발이다. 그 뒤에 참다운 정치가와 참다운 철학자의 탐색이 복선으로 깔린다. 따라서 대화편의 출발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맥락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주제는 점차 본격적인 인식론적-존재론적 문제들로 넘어간다. 사유는 현실에서 출발해 점차 근본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을 엉터리 지식을 팔아 치부(致富)하는 사이비 지식인으로 규정하는데, 주목할 것은 그 방법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근거이다. 현실 속에서는 대개 이성적 근거는 없고 감정적 평가/매도만이 존재한다. 근거를 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www.artnstudy.com

은 분할의 방법이다. 『파이드로스』와 『정치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방법은 플라톤의 후기 철학을 이해하는 한 관건이다. 결국 소피스트들은 가짜를 진짜로 속여 팔아 치부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오류/거짓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류/거짓이란 아닌 것을 맞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오류/거짓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비존재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파르메니데스에 반(反)해서 비존재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논의는 인식론적 문제제기를 거쳐 마침내 철학의 최고최대의 문제인 (비)존재의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플라톤은 존재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파르메니데스를 넘어서기 위해 '친부살해(親父殺害)'를 감행하고, 당대까지의 존재론사를 검토하는가 하면,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을 논하기도 한다. 나아가 판단의 문제와 유들 간의 공통성, 비존재의 존재, 다섯 개의 최상위 유들, 타자로서의 비존재 같은 굵직한 문제들을 쏟아낸다. 이렇게 존재론을 확립하고서 이제 플라톤은 다시 현실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논의의 디딤돌이었던 오류/거짓의 문제가 다시 재론된다. 즉 확립된 존재론에 근거해서 오류/거짓의 문제가 다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논의가 처음 출발했던 지점, 즉 "소피스트들이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온다. 논의의 원환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플라톤은 사이비 지식인들을 고발하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인식론을 거쳐 존재론으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인식론을 거쳐 본래의 문제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원환은 사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철학함이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탄탄한 근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논의 구도만큼 사유함, 철학함을 잘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다. 『소피스테스』를 철학사의 최고 고전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내용과 더불어 이러한 논의 구도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인 것이다.

▶ 강의의 구도

플라톤은 당대까지의 존재론사를 논하면서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을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 논의의 제목은 보다 큰 지평에서의 투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플라톤과 그 후예들로 구성된 신족과 니체와 그 후예들로 구성된 거인족의 투쟁을 논할 것이다. 니체 이후 철학은 하나의 모토를 반복해 왔다: "플라톤주의를 전복하라!" 그러나 이런 반복은 역설적으로 플라톤주의의 건재(健在)를 증명해 주고 있다. 죽은 시체를 전복할 이유는 없겠기에 말이다.
고전적인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은 이미 죽은 철학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죽은 철학자는 살아 있는 철학자에게 대답할 수 없다. 그에게 던지는 비판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오해했고, 헤겔은 칸트를 부당하게 폄하했으며, 바슐라르는 베르그송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철학사적 인물들에 대한 모든 공격은 살아 있는 인물들에 대한 공격이다. 플라톤에 대한 공격은 현대의 플라톤'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며, 공자에 대한 공격은 현대의 공자'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철학사적 인물의 현존(現存)을 증명해 준다. 모든 철학적 투쟁은 현재의 투쟁이다. 철학사적 인물은 그 투쟁에 연루됨으로써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철학사에서의 반복은 결코 지루한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진감 넘치는 투쟁들에서의 반복인 것이다.

www.artnstudy.com

그래서 플라톤주의의 전복은 결국 현대 플라톤주의자들과 반플라톤주의자들의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 플라톤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플라톤 자신과 그 적대자들을 직접 대화시킬 것이다.(오늘날의 대결 – 예컨대 들뢰즈와 바디우의 대결 – 은 다음의 과제로 넘기자)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자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은 이데아와 시뮬라크르의 대결로 요약된다. 우리의 시대는 '시뮬라크르의 시대'이며, 이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전장(戰場)으로서 『소피스테스』를 택해야 할 이유이다.

우리 논의는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을 다룰 것이며, 따라서 신족 자체 내에서의 차이들과 거인족 자체 내에서의 차이들에 대해서는 자연히 둔감할 수밖에 없다. 플라톤주의자들 사이에서의 차이들, 그리고 니체 이후의 대표적인 존재론자들 –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하이데거, 들뢰즈, 데리다 – 사이에서의 차이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종종 비켜갈 것이다.

현대 사유에서 플라톤의 사유는 종종 단순화되곤 했다. 『사건의 철학』에서 우리는 현대라는 입각지에 서서 플라톤주의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각지를 그리스로 옮겨 새로운 논의 지형을 짜고자 한다. 世界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보다 많은 상대성을 보듬음으로써만 우리는 世界의 진상(眞相)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피스테스』 편을 읽어가면서 한편으로 단순화된 플라톤 상(像)을 깨고서 이데아론의 보다 심층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역시 우리가 플라톤을 넘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인가를 짚어볼 것이다.

www.artnstudy.com